



에스오일, 주유소와 손잡고 지역 이웃돕기 나서
에스오일은 주유소와 함께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는 '주유소 나눔 N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하고 3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금 3억3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주유소 나눔 N 캠페인' 기부금 전달식에서 에스오일 안종범 수석부사장(오른쪽 세번째),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오른쪽 네번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스오일



이랜드, 소방가족 치우개선·사기진작에 앞장
이랜드가 소방 가족 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119 히어로 리프레쉬 투어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랜드재단은 세종시에 위치한 소방청에서 우수소방관을 대상으로, 이랜드파크 호텔&레저 사업부에서 운영 중인 컨싱턴호텔앤리조트의 국내 호텔과 리조트 시설의 숙박을 지원하는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정재철 이랜드재단 대표이사, 정문호 소방청장, 방병승 컨싱턴호텔앤리조트 BU장 /이랜드그룹



골든블루, 제3회 마스터블렌더 육성 장학증서 수여
골든블루는 제 3회 골든블루 마스터블렌더 육성 프로젝트 장학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선발된 장학생 오는 9월부터 1년 동안 해리엇와트 대학교 양조·증류학과 석사 과정을 밟을 예정이며, 골든블루는 학생들이 스코틀랜드에서 안정적으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비 전액과 체재비, 항공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동욱 골든블루 김동욱 대표(왼쪽부터), 장학생 김준규, 이은주, 최용서 골든블루 부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골든블루

빙그레, '어린이 그림잔치 공모전' 접수

빙그레는 이달 말까지 '제 33회 빙그레 어린이 그림잔치 공모전'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공모전 접수는 빙그레 어린이 그림잔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빙그레 어린이 그림잔치 공모전은 수도권, 남부권으로 나뉘어 유치부와 초등학생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는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하고 그림을 그려 우편으로 보내 공모전에 참가할 수 있다.



다. 그림을 보낸 참가자에게는 빙그레 바나나 맛우유 기프트콘이 지급된다. 공모전에 접수된 그림은 전문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진행하여 우수 작품을 선정해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백인영기자

자이글, 새싹재배기 '잘자람' 증정 이벤트

자이글주식회사는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가정용 새싹재배기 '자이글 잘자람'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산에는 나무를 심고, 집에선 푸르른 새싹을 키워 건강한 유기농 채소를 먹자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이벤트는 식목일과 관련된 '자이글 잘자람' 홍보문

구를 만들어 4일까지 자이글 공식 카페,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응모하면 된다. 총 20명을 선정해 자이글 잘자람을 선물로 증정한다.

자이글 잘자람은 약품 없이 물만으로 집에서 채소를 키워 먹을 수 있는 웰빙 가전이다.

/백한님 기자 ericabae1683@

최면과 Yes Set



진성오 소장의 심리카페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에게 몇 가지를 말해 보겠다. 우선 독자는 이 글을 보고 있다. 대답은? "Yes"일 것이다. 다음, 이 글을 읽기 위해 눈은 뜨고 있어야 할 것이다. 대답은 역시 이것도 "Yes"일 것이다. 그럼, 마지막 질문. 독자는 컴퓨터 모니터나 휴대폰 화면을 보고 이 글을 읽을 것이다. 이것도 당연히 그리고 아마 절대적으로 "Yes"일 것이다.

필자의 질문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럼, 한번 모니터에서 고개를 들고 정면을 보기 바란다. 어떤가? 무엇이 보이는가? 아마 이 글을 읽은 독자들은 필자와 마주 하지 않아도 필자가 말한 일종의 제안-최면에서는 암시라고 한다—을 받아들여 고개를 들고 정면을 보았을 것이다. 만일 고개를 들고 정면을 보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고개를 들고 앞을 보라!

보통 우리는 최면이란 것을 굉장히 신비하고 혹은 뭔가 무서운 어떤 것으로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최면 현상은 사실 일상에서 아주 다양하게, 그리고 거의 매 순간 일어난다. 필자와 같이 생각하는 최면에 대한 이해를 '4세대 최면이론'이라고 한다.

최면도 여러 세대가 있다는 말은 낯설게 들리겠지만 사실 최면도 매우 다

양한 세대를 거치면서 발전해 왔다. 1세대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최면으로 피 최면자의 의식을 없애고 원하는 것을 암시하는 작용을 활용했다. 2세대 최면은 현재의식을 없애고 잠재의식에 맞기는 형태이며 3세대 최면은 현재의식은 최면을 경험하면서 잠재의식은 무엇인가를 창조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위에서 언급한 4세대 최면은 모든 것을 최면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최면을 걸고 최면을 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모두 최면 상태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이쯤 되면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떠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도 드는데 사실 여부를 떠나서 최면가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러한 설명은 SF적이거나 신비한 이야기가 아니라 뇌과학자들도 동일하게 설명하는 부분이다. 그들은 인간 경험의 특성이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외부로부터 온 자극을 결국 뇌에서 프로세싱하고 있고 이러한 프로세싱은 화학과 전기적 흐름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세상이라는 곳에 있는지 혹은 그냥 가상현실 안에서 경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물통속의 뇌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4세대 최면가들이 말하는 현실적인 의식이란 사실 거짓이고 우리는 최면 상태에 있는 것이며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최면 상태는 무수한 최면의 의식 상태중 하나에 해당된

다고 설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면이란 결국 하나의 최면 상태에서 또 다른 최면상태로 변화시키는 작업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인간은 마치 자유의지가 있는 듯 행동하지만 일종의 프로그래밍 사고와 행동을 통해 움직이는데 필자가 글 초반에 언급한 세 번의 Yes를 얻어내는 작업도 그러한 프로그래밍된 인간 사고의 특성을 보여준 것이다. 필자가 말한 3번의 설명은 절대 No라고 말하기 어려운 혹은 할 수 없는 있는 사실을 설명해준다. 이렇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한 질문에 Yes를 세 번 이상 말하게 되면 사람들은 4번째의 지시나 권유에 No라고 대답하기 힘들다는 심리적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필자는 독자로 하여금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도 못한 상황에서 고개를 들게 한 것이다. 이러한 일종의 트릭은 이 분야의 사람들은 'Yes Set'이라고 한다.

자, 그러니 필자가 다시 한번 제안해 본다. 이제 모니터나 폰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함 들어보라! 만일 고개를 든다면 필자의 암시가 작동한 것이다. 혹시 나는 눈을 떼지 않을 거야 하고 보고 있다면 역시 필자의 의도가 통한 것이다. 어떤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되는 장난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정확하게 필자가 독자의 마음을 또 한번 읽은 것이다. 왜냐하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을 필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신의 마음연구소장

수출입은행, 소외계층 위해 3억 5300만원 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에 사용

한국수출입은행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에 총 3억5300만 원을 후원했다고 3일 밝혔다.

수은이 전달한 후원금은 사랑의 열매를 통해 다문화가정·탈북민 등 수은이 중점 후원하는 분야를 포함해 장애인 일자리·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총 10개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은성수 은행장은 "정책금융기관이 필요한 곳에 양질의 자금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활동에 앞장서는 것도 값진 일이다"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오른쪽)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김연순 사랑의 열매 사무총장을 만나 후원금 3억 5300만원을 전달했다. /수출입은행

면서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미는 등 사회

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인사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원 선임 △금융사업본부장 전대현 △자산관리본부장 오원택 △주택도시보증본부장 김희곤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중국) ◇지회장 △상하이 이학준 △광저우 이용철 △다롄 석문수 △상하 금동일 △엔타이 김용 △선양 박해평 △수저우 김용 △하얼빈 임중호 △톈진 안정환 △홍콩 나정주 (미국) △광 이종원 △워싱턴 저스틴 정 (인도) △벵갈루루 정현경 △뉴델리 김원준 △베트남 호찌민 김진섭 △일본 나고야 김상도 △프랑스 파리 장영배 △대만 전병덕 △호주 시드니 노현상 △캐나다 토론토 김효선 △스페인 바르셀로나 박명신 △폴란드 바르샤바 이홍민 △싱가포르 박방수 △필리핀

마닐라 박완섭 △헝가리 부다페스트 이영인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정천호 △독일 뒤셀도르프 정종구 △스리랑카 콜롬보 오지철
◆테라젠이텍스 △상무 김대율 △이사 강주원 △이사대우 안종천 김해숙 홍창표 홍경원
◆디지틀조선TV △보도국장 김중훈
◆에너지경제신문 △산업부장(국장) 정훈식 △에너지부장(국장) 배병만 △산업부 차장 김민준

부음

▲이도성(전 삼성화재 상무)씨 별세, 이희중(전주대 국어교육과 교수)·이희평(홍대부중 교사)·이정훈(티오티건축 대표)·이화진(주부)씨

부친상, 김미도(서울과기대 문예창작학과 교수)·김향미(주부)·정태희(신영와코루 마스터 디자이너)씨 시부상, 모성진(비스프로컨설팅 부장)씨 장인상 = 2일 오후 6시30분께, 서울 원자력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5일 오전 8시, 02-970-1541
▲강양희 씨 별세, 박상준(STX 대표이사, STX마린서비스 대표이사)·현미·영미·미경 씨 모친상 = 3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층 23호실, 발인 5일 오전, 02-3010-2000.
▲김태영씨 별세, 최중후(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최중수(유선통신 대표)·최충원(토이스토리 대표)씨 모친상, 정성희(블루리본 학원 대표)씨 시모상 = 3일 오전 5시20분께,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6일 오전 6시 30분, 02-3410-6915